

아스퍼거증후군 관련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전 상 신**

광주여자대학교

《 요 약 》

최근 DSM-5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전반적 발달장애의 하위영역에 포함되었던 아스퍼거증후군의 진단명이 사라졌으며 자폐스펙트럼장애로 단일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아스퍼거증후군과 관련되어 있는 학술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포함 및 제외 기준에 따라 선정된 총 80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발표년도, 연구주제, 연구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아스퍼거증후군 관련 국내연구는 2008년 이후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연도별 연구주제는 언어 및 의사소통, 사회성, 행동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특히 사회성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셋째, 연구유형은 중재연구와 특성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 외 문헌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으며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연구는 2편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유형별 연구주제는 중재연구의 경우,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특성연구는 언어 및 의사소통에 대한 특성 비교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아스퍼거증후군, 자폐 스펙트럼 장애, DSM, 연구 동향

* 본 논문은 2016 학년도 광주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WUI16-035)

** 광주여자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withjss@daum.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스퍼거증후군은 국제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서 공인한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Disease: 이하 ICD)의 제 10판 즉, ICD-10(WHO, 1992)에 공식 진단명으로 처음 인정되었다. 이후 1994년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DSM-IV)에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이하 PDD 혼용)의 하위유형으로 포함되면서 독립적 진단명으로 편입되었다.

DSM은 ICD와 함께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진단 분류 체계 중 하나로 1952년 DSM-I이 발행된 이후 지금까지 DSM-II (APA, 1968), DSM-III (APA, 1980), DSM-III-TR (APA, 1987), DSM-IV (APA, 1994), DSM-IV-TR (APA, 2000)으로 수정 또는 개정되며 2013년에 DSM-5가 새롭게 출간되었다. 전반적 발달 장애는 1980년에 수정된 DSM-III에 처음으로 언급되어 분류체계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이다(Volkmar & Klin, 2005). 1994년 DSM-IV가 개정되면서 PDD의 하위 영역에 처음으로 자폐성장애(Autistic disorder: 이하 AD 혼용), 아스퍼거증후군(Asperger syndrome: 이하 AS 혼용)¹⁾, 레트장애, 아동기붕괴성장애, 비전형전반적 발달장애(PDD not otherwise specified: 이하 PDD-NOS 혼용)가 포함되면서 아스퍼거증후군이 DSM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DSM-IV-TR(2000)은 PDD의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이후 2013년 5월 출간된 DSM-5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존의 전반적발달장애가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이하 ASD 혼용)라는 진단명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PDD의 하위영역이었던 5가지 장애 중 자폐성 장애와 아스퍼거증후군, 비전형 전반적 발달장애 3가지 하위 유형이 ASD 단일범주로 대치되었다. PDD의 하위영역이었던 아동기붕괴성장애는 DSM-5의 ASD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입장(Tsai & Ghaziuddin, 2014; Young & Rodi, 2014)과 그렇지 않고 3개의 하위 유형만 포함되었다고 보는 입장(Gibbs et al., 2012)으로 여전히 논쟁되어지고 있다. DSM-5에서는 ASD를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이라는 두 가지 핵심 준거의 수행 결함 정도에 따라 지원을 요구하는 수준(1수준), 실질적인

1) DSM-IV-TR에서는 아스퍼거장애(Asperger's disorder), ICD-10에서는 아스퍼거증후군(Asperger's syndrome)으로 명명되고 있음. 이 논문에서는 자폐성 장애(Autistic disorder: AD)와 구분하기 위해 아스퍼거증후군(Asperger's syndrome: AS)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음

지원을 요구하는 수준(2수준), 매우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수준(3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이승희, 2015). 이렇게 하여 아스퍼거증후군은 DSM의 진단명으로 등장한지 20년 만에 ‘일단은’ 사라지게 되었다.

AS는 오스트리아 소아과 전문의였던 Hans Asperger에 의해 1944년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1981년 Lorna Wing에 의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94년 DSM-IV에 AS의 진단이 도입되고 알려지기 시작한 이래로 AS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손승현, 2008; 신석호, 2014; Gillberg, 1998). AS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진단이나 교육적·치료적 접근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임상적으로 경험이 많지 않고 AS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정의 및 진단상의 혼돈 등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고 있어 AS라는 진단 자체가 여전히 논란이 되어오고 있기 때문이다(신석호, 2014). 이들의 출현율은 AD 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Ehlers & Gillberg, 1993) 출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Klin, McPartland, & Vlokmar, 2005). 현재 AS만의 단독 출현율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으나 AS를 포함한 ASD 아동을 교육하는 국내외 교육 현장의 통계 자료에서 이들 출현율의 증가 추세에 대한 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 특수교육연차보고서(교육부, 2016)의 최근 6년간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ASD 아동은 2011년 8.2%(6,809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6년에는 12.5%(10,985명)로 해마다 늘고 있다. 5년 동안 61.3%(4천176명)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특수교육을 받는 전체 특수교육대상자가 2011년 8만2천665명에서 2016년 8만7천950명으로 6.4%(5천285명) 많아진 것보다 증가폭이 훨씬 큰 것이다. 이렇게 ASD의 출현율이 증가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와 비교하여 ASD를 진단하는 좀 더 신뢰로운 도구가 개발되고 장애 개념이 확장되면서 부모, 전문가, 사회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소현, 이수정, 윤선아, 2013). 또한 이전에는 ASD로 진단받지 않았던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AS나 PDD-NOS의 아동들이 진단을 받게 되면서 출현율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서경희, 2002; 손승현, 2008; Croen, Grether, Hoogstrate, & Selvin, 2002). 점차 AS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진단 및 출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DSM-5가 새롭게 개정되어 AS의 진단명이 사라지면서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ICD-10과 DSM-IV-TR에서 정의하는 AS의 진단 기준으로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기술들에 장애가 있으면서 언어발달 과정에서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언어 지연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AS아동은 인지나 언어발달에 두드러진 지체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일생생활을 할 수 있으며 외현적으로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 첫 진단이 이루어지는 연령이 AD는 평균 5.5세인 반면 AS의 경우에는 훨씬 후인 11.1세라고 보고되었다(Howlin & Asgharian, 1999). 진단의 시기도 늦지만 자녀의 장애를 의심하여 부모가 전문기관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다른

여타 장애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균 이상의 지능과 언어 능력은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오히려 적응상의 문제를 보상하거나 장애를 의심하지 못하게 하여 적절한 시기에 진단과 교육적 접근을 놓치게 하는 제한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정보경, 2015). 또한 또래나 교사들로부터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인식되어 이해받기 보다는 이들의 맥락에 맞지 않은 행동이나 말 때문에 부정적인 인성, 심지어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오해를 받게도 한다(김경민, 2007; 전상신, 김은경, 2013; Raheja, Libretto, & Singh, 2002). 뿐만 아니라 AS 아동들이 보이는 과잉행동적인 태도와 선택적으로 몰입하거나 관심이 없는 활동에 쉽게 산만해지는 태도로 인해 과잉행동 주의력결핍장애로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시기에 맞는 필요한 교육적이며 치료적 지원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정보경, 2015).

AS는 흔히 고기능자폐(High Functioning Autism: 이하 HFA와 혼용)와도 혼용하여 인식되기도 하는데 두 장애 모두 지능이나 언어는 정상범주이지만 사회성과 정서, 적응행동에서의 결함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AS와 HFA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하는 동안 눈맞춤이나 비구어적인 행동과 얼굴표정의 사용,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동작, 공동 활동과 사회적 놀이에 결함이 있는 양상을 보이고, 학령기 이후의 AS와 HFA 아동은 우정 형성 및 유지에 필요한 기술 발달 과정이 유사하게 나타난다(이정자, 2009). 그러나 이승희(2006)는 AS와 HFA의 진단과 출현율, 출현시기, 원인, 특성(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제한적 반복적 상동적인 행동 관심 활동, 감각 민감도, 지능, 뇌기능, 집행기능, 마음이론, 운동기능, 공병) 및 예후와 관련하여 비교 고찰 한 결과, 두 장애는 서로 구분되는 장애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윤현숙, 광금주(2005), 이정자(2009), 박명희, 이승희(2008) 또한 AS 아동이 HFA 아동들보다 언어나 인지적 측면에서 보다 뛰어나며 교육의 예후가 좋음을 보고 하며 AS와 HFA의 구분의 타당성에 대해 뒷받침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AS를 ASD의 경미한 축의 끝에 위치하는 자폐증의 변형된 한 형태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거나 미국은 AS와 HFA를 구분하여 진단하였다. 신석호(2008)는 우리나라의 경우 AS나 HFA 모두 AS의 이름으로 통합되고 있는 분위기이며 이러한 관점이 정확한 진단 및 평가를 어렵게 할뿐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이들 각 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교육과 치료가 제공되는데 또 다른 방해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 AS와 HFA는 구분되어 진단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교육적 접근 방법에도 분명 차이를 두고 있어야 한다.

AS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AS가 공식 진단명으로 인정된 후 20년 동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AS의 결함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성과 적응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긍정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재를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 또래의 비장애 아동 또는 HFA 아동들과 특성을 비교하여 AS

만의 고유의 독특한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 등이 진행되며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SM-IV에 AS가 공식 진단명으로 포함된 이후 그 명칭이 사라진 2013년의 DSM-5를 거쳐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AS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여 왔는지 국내 AS에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AS 아동들을 위해 향후 이들의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선행연구에서 주는 시사점과 AS와 관련한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아스퍼거증후군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도별 분포와 주제는 어떠한가?
둘째, 아스퍼거증후군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 유형과 연구 유형별 주제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논문 선정 기준

본 연구는 아스퍼거증후군을 주제로 한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총 80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 논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4년 이후 2016년 6월까지 학술등재지 또는 학술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을 분석하였다. 1994년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1994년 개정된 DSM-IV에서 처음으로 아스퍼거증후군을 전반적발달장애의 하위영역으로 포함시킨 시기이기 때문이다. 1992년 ICD-10에서 먼저 공식 진단명으로 사용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전문가들은 DSM의 분류를 따르고 있어 DSM-IV의 개정 시기를 선정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아스퍼거증후군을 주제로 다룬 모든 유형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논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논문 제목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의 주제어에 ‘아스퍼거’가 제시되어 있거나 연구 대상자에 부분적으로 아스퍼거증후군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논문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학술대회 논문집이나 포스트 발표, 학위논문은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분석 대상 논문 선정 절차

1994년 이후 2016년 6월까지 발간된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아스퍼거증후군에 대한 연구의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DBPIA(누리미디어), KISS(한국학술정보), 교보문고 스콜라, 학지사 뉴노문을 통해 논문을 검색하였다. ‘아스퍼거’, ‘아스퍼거증후군’, ‘아스퍼거신드롬’, ‘아스퍼거장애’, ‘고기능자폐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자폐성장애’를 검색어로 하여 띄어쓰기를 고려하여 검색하였다.

둘째, 검색된 논문 중 아스퍼거증후군, 고기능자폐, 자폐스펙트럼장애와 관련한 문헌분석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들의 목록과 참고문헌을 일일이 살펴보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논문을 모두 탐색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셋째, ‘자폐’를 검색어로 넣고 해당 논문의 주제어에 ‘아스퍼거’가 제시되어 있는 논문에 대해서도 모두 내용을 확인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논문을 포함하였다.

넷째, 연구 대상에 고기능자폐성장애 및 비전형전반적발달장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아스퍼거증후군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선정된 논문의 참고문헌을 검토하여 추가될 논문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 절차에 따라 총 102편의 논문이 수집되었다. 최종 수집된 연구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목이나 주제어에 아스퍼거증후군이 있었으나 내용에는 아스퍼거증후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등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논문 22편을 제외한 나머지 80편의 논문을 분석대상 논문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3. 분석 내용

AS 연구의 동향 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은 자폐 및 연구 방법 관련 선행논문(김애화 등, 2011; 김은경, 김은경, 2006; 김은경, 방명애, 박현옥, 2014; 김은실, 이승희, 2011; Fraenkel & Wallen, 1996)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분석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박사 수료생 1인과 특수교육학과 교수 1인이 검토한 후 수정·보완하였다. 분석틀은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4. 분석자간 신뢰도

연구 분석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수교육 전공의 박사수료생이 제 2분석자가 되어 연구문제 1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 논문의 34%에 해당하는 27편을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 2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논문 80편을 모두 분석하였다. 제 1분석자인 연구자와

제 2분석자가 분석한 연구 문제 1에 대한 분석자간 신뢰도는 93.3%로 산출되었다. 연구 문제 2에 대한 분석자간 신뢰도는 연구 유형별 분석자간 신뢰도는 92.5%, 유형별 주제에 대한 분석자간 신뢰도는 93.3%로 산출되었다. 이 값은 두 분석자간 일치한 항목의 수를 일치한 항목과 불일치한 항목의 수의 합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구하였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두 분석자가 원문을 재검토하여 서로의 코딩을 비교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수정하였다.

<표 1> 논문 분석틀

구 분	영 역	분석 내용
연구문제 1	연도별 분포	• 논문이 게재된 연도를 확인하고 연도별로 발표된 논문의 빈도와 비율 분석
	연구 주제	• 언어 및 의사소통/사회성/인지 특성/정서 및 행동/진단 및 정의/기타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논문 주제의 빈도와 비율 분석 ※ 한 논문에 2 개 이상의 주제일 경우 중복 체크함
연구문제 2	연구 유형	• 중재연구(집단연구, 단일대상연구, 사례연구) • 특성연구(연구대상이나 특정 현상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진 연구) • 질적연구(면접, 관찰, 내러티브 분석 이용한 연구) • 평가연구(평가 도구 및 모형 개발, 평가 방법 등 평가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연구) • 문헌연구(동향분석, 메타분석, 리뷰 연구)
	연구 주제	• 언어 및 의사소통/사회성/인지 특성/정서 및 행동/진단 및 정의/기타로 구분하여 논문 유형별로 논문 주제의 빈도와 비율 분석 ※ 한 논문에 2 개 이상의 주제일 경우 중복 체크함

III. 연구 결과

1. 연도별 분포와 주제에 대한 분석

분석대상의 논문으로 선정된 총 80편의 논문 중 가장 빠르게 발표된 논문의 연도는 1998년이며 그 연도별 분포와 주제에 대한 분석은 <표 2>와 같다. 1998년을 시작으로 하여 2006년까지 서서히 증가되던 논문이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상당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 시기에 전체의 75.1%에 해당하는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논문의 수가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2016년 상반기에는 발표된 연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4호)

<표 2> 연도별 논문의 분포와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

연도	n(%)	연구 주제*							기타 주제
		언어 및 의사소통	사회성	인지 특성	정서 행동	진단 평가	감각	기타	
1994~97	0(0)								
1998	1(1.3)			1		1	1		
1999	0(0)								
2000	0(0)								
2001	2(2.5)	1	1	1	1		1		
2002	4(5.0)	1	2	3	2				
2003	1(1.3)	1							
2004	3(3.7)	1	1	1	1			2	AS 증상 완화
2005	2(2.5)		1		1	1			
2006	4(5.0)	1	2	2	1				
2007	5(6.3)	1	2	1	2	1		3	AS영재 특성 AS, HFA 비교
2008	9(11.2)	2	4		1	2	1	3	AS, HFA 비교, 통합교육
2009	8(10.0)	2	2	1	4			3	AS 연구 동향, AS 증상 완화, 통합교육
2010	5(6.3)	2	3	1	1				
2011	10(12.5)	2	3	1	1	1		2	AS 문헌분석, AS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2012	5(6.3)	1	2	1	1				
2013	12(15.0)	4	2	2	3			3	학교폭력연구동향, 학교폭력에 대한 AS 부모면담
2014	6(7.5)	2						4	AS 대상 상황 이야기 중재 연구, 양육경험(2편), AS와 DSM-5
2015	3(3.7)	1	1		1				
2016	0(0)								
계 (%)	80 (100.0)	22 (19.6)	26 (23.2)	15 (13.4)	20 (17.9)	6 (5.3)	3 (2.7)	20 (17.9)	112 (100.0)

* 논문 주제 중복 체크함

연도에 따른 연구 주제별 분석을 살펴보면, AS의 사회성에 대한 연구가 26편(23.2%)으로 분석대상 논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AS의 언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22편(19.6%),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연구 20편(17.9%), 인지적 특성에 대한 연구 15편(13.4%)이었다. 분석된 논문 80편 중 AS의 전반적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았거나 중재 방법에 대한 문헌분석 연구, 부모의 양육 경험, 부모의 AS 자녀 행동의 인식, DSM-5 연구 등 기타 주제에 대해 연구한 논문 20편을 제외한 60편(75%)은 AS의 특징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성과 언어 및 의사소통, 정서 및 행동, 인지적 특성을 주제로 한 논문이었다. 연구 주제를 중복 체크 하였을 경우, 총 112개 중 83개로 전체의 74.1%에 해당하는 논문이 AS의 주요 특성을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AS의 진단과 정의에 대한 연구가 6편(5.3%), AS의 감각에 대한 연구가 3편(2.7%)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AS의 언어 및 의사소통과 사회성, 정서 및 행동, 인지적 특성과 관련한 연구는 2001년 이후 매 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언어 및 의사소통과 사회성에 관련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2007년을 기점으로 연구 주제가 다양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타 주제에 해당하는 연구는 20편(17.9%)으로 AS와 HFA 간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 AS 영재 연구, AS의 통합교육, AS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문헌분석 연구 등이 있었다. 또한 AS 본인에만 초점을 맞췄던 연구주제에서 보다 확장되어 2011년 이후로는 AS 자녀를 둔 부모의 관점이나 양육경험 등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외에도 AS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학교폭력에 대한 문헌연구와 DSM-5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되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 유형과 연구 유형별 주제에 대한 분석

연구 유형과 연구 유형에 따른 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독립변인을 조작하여 실제 연구 대상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살펴본 집단연구, 단일대상연구, 사례연구를 포함한 중재연구가 26편으로 전체 연구의 32.5%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AS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상관연구 및 인과비교연구, 특성분석연구가 24편으로 전체연구의 30.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성연구와 중재연구가 전체연구의 62.4%로 AS에 대한 연구 유형 중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동향분석, 메타분석, 리뷰 등을 포함한 문헌연구 18편(22.5%), 질적연구 10편 (12.5%), 평가연구가 2편(2.5%)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 유형별 분석 결과

연구 유형	n(%)	연구주제*							기타주제
		언어 및 의사소통	사회성	인지 특성	정서 행동	진단 정의	감각	기타	
중재 연구	26 (32.5)	5	17	5	13	-	1	5	AS 성향 완화, 운동기능 부모효능감
특성 연구	24 (30)	13	3	6	5	2	2	1	AS, HFA 비교 부모 양육경험, AS 성향 완화, AS자녀의 학교 부적응 요인, AS자녀의 학교 폭력경험과 부모지원
질적 연구	10 (12.5)	2	1	-	2	-	-	5	AS영재, AS와 종교상담, 상황이야기중재, 통합교육, AS, HFA 비교 AS와 DSM-5 관련 연구, AS 학교폭력
문헌 연구	18 (22.5)	2	5	4	-	3	-	8	
평가 연구	2 (2.5)	-	-	-	-	2	-	-	
계(%)	80 (100.0)	22 (19.6)	26 (23.2)	15 (13.4)	20 (16.7)	7 (5.8)	3 (2.5)	19 (15.8)	112 (100.0)

* 연구 주제 중복 체크함

1) 중재연구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독립변인을 AS 학생에게 적용하여 특정 종속변인의 변화를 살펴 본 사례연구와 실험연구, 단일대상연구를 모두 중재연구로 포함하였다. 분석 대상 총 80편 중 중재연구는 26편(32.5%)이었다. 연구 주제에 따라 중복 체크한 결과, AS의 사회성과 사회적 기술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중재연구가 17편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연구(13편), 언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중재연구(5편)가 이루어졌다.

중재연구는 홍정은(2002), 이경숙 등(2002)의 AS 학생들의 사회 인지 향상을 위한 사례 연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주로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학교나 집단에서의 부적응적 행동과 정서표현을 개선시키기 위한 중재 개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AS 아동들의 사회적 기술 습득을 위한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 또래관계 기술 및 사회기술, 사회적 상황에 맞는 구체적 행동,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사회적 행동의 시도와 반응하기 등 AS의 주된 결함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중재가 개발·적용되었다. 그 중재 방법으로는 상황이야기, 파워카드, 사회인지 향상 프로그램, 마음읽기에 근거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부모참여 인지행동 사회성 지도, 동화 중심 인지행동 중재, 사회기술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치료적 접근을 통한 AS의 증상을 변화시키고자 한 연구들도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AS의 행동에 대한 중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내에서 보이는 AS 아동들의 위축행동과 불안행동, 공격행동, 자리이탈 및 울화 짜증, 과제이탈행동, 과제거부행동, 상황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상호작용과 부적절한 식사예절 및 편식 등을 개선하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외 언어 및 의사소통을 촉진하고자 진행한 연구와 인지적 측면, 특히 사회인지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를 개발하고 향상시키고자 한 연구가 있었다. 감각통합훈련을 통해 이들의 전정감각과 고유감각 처리능력을 향상시킨 연구와 AS 아동의 사회성을 향상 시킴으로써 양육하는 부모의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한 연구가 있었다.

2) 특성연구

연구 대상이나 특정 현상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갖고 진행된 특성연구는 분석대상 총 80편 중 24편(30.0%)이었다. 연구 주제에 따라 중복 체크한 결과, AS의 언어 및 의사소통의 특성, 사회성, 인지, 정서 및 행동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AS의 인지기능과 시각-운동 협응 능력을 살펴 본 양윤란과 신민섭(1998)의 연구를 시작으로 언어 및 의사소통연구가 13편으로 가장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내용으로는 이야기 산출 능력, 화용론적 능력, 구문표현능력,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발화의 양과 질, 관용적 표현의 이해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AS 아동들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6편이 있었는데 이들은 AS 아동들의 지능검사 분석을 통한 인지적 특성과 실행기능을 분석하였다, 또한 AS 아동들의 정서적 맥락 이해를 알아보하고자 한 정서 및 행동 특성 연구 5편, 사회성에 대한 연구가 3편으로 나타났다. 진단 및 정의, AS와 HFA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 감각에 대한 연구가 각각 1편씩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질적연구

분석대상 총 80편 중 AS 아동들의 언어 및 의사소통, 사회성, 문제행동 등에 관련하여 면담을 실시하여 분석한 질적연구는 10편(12.5%)이었다. 연구 주제에 따라 중복 체크한 결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양육경험이나 자녀에 대한 인식, AS 자녀의

25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4호)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과 AS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여 분석한 질적연구가 3편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AS의 언어 및 의사소통을 주제로 실행된 연구 2편, 사회성 1편,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연구 2편이 있었다.

4)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서경희(2001)가 AS의 조기 진단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AS의 인지적 결손의 관점에서 중재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분석대상 총 80편의 연구 중 18편(22.5%)이었다. AS를 포함한 ASD 아동들의 읽기 기술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김광욱, 조성재, 김화수, 2015)에 이르기까지 매해 꾸준히 이루어졌다. 특히 2007년에는 발표된 5편의 AS와 관계된 연구 중 3편(강경미, 2007; 문태형, 2007; 이승희, 2007)이 문헌연구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8-2009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연구 주제에 따라 중복 체크한 결과, AS의 사회성에 대한 연구동향 문헌분석 연구가 5편이었다. 마음이론이나 AS와 HFA의 인지 비교 등 인지 특성에 대한 문헌분석 연구 4편, 진단과 정의에 대한 문헌분석 연구 3편, 언어 및 의사소통에 대한 문헌분석 연구 2편이었다. 그 외 AS 아동에 대한 기독교적 상담, AS 영재 연구, AS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상황이야기 중재관련 문헌분석, AS 관련 연구에 대한 문헌분석, AS와 학교폭력에 대한 문헌분석, 2013년 새롭게 개정된 DSM-5와 AS를 주제로 연구한 문헌분석이 있었다.

5) 평가연구

분석대상 총 80편의 연구 중 평가도구나 진단에 관한 연구는 2편(2.5%)이었으며 두 편 모두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 발표된 것으로 한국판 아스퍼거증후군 진단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구하기 위한 연구(김주현, 신민섭, 2005; 김하나, 신민섭 2011)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199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아스퍼거증후군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학술지에 수록된 80편을 조사하여 연도별 연구의 분포와 연도별 연구 주제 분포, 연구유형과 연구 유형별 주제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분포 및 주제에 대한 논의

1) 연도별 분포

1994년 아스퍼거증후군이 DSM-IV에 진단명으로 등장하였으나 국내에서 AS에 관련한 연구가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1998년이였다. 이후 2000년 까지 AS를 주제로 진행된 연구는 없었으며 2001년 2편의 연구를 시작으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져왔다. 2001년부터 다시 시작된 연구가 2007년까지 평균 2.7편으로 진행되었으며 2007년에서 2014년 사이에 많은 성장을 보여 평균 5.6편 정도가 매해 발표되었다. 분석 대상 연구의 78.8%이상이 2007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증가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정서장애 영역’안에 ‘자폐성 장애’가 포함되어 있던 것에서 2007년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ASD가 독립적인 장애영역으로 명시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은경과 김은경(2006)의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국내 ASD 연구에 대한 동향 분석을 한 연구와 김은경 등(2014)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내 ASD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의 결과와도 같으며 AS관련 국내 연구를 분석한 김은실과 이승희(201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되던 연구는 2014년에 6편으로 연구의 수가 이전 해에 비해 50% 감소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또다시 3편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DSM-5에서 아스퍼거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이 빠지게 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AS의 진단명이 사라지고 ASD라는 단일 진단명으로 이들을 포함한다는 것은 분명 더 많은 논란과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Kite, Gullifer, & Tyson, 2013). 국내에서 AS의 출현율과 AS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현장은 증가하는데 연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외의 AS 연구는 DSM-5의 변화로 인한 혼란 및 논쟁을 주제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수의 논문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거나 진단을 보류해야 함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AS와 AD 집단 간의 MRI를 비교한 연구를 분석한 Pina-Camacho 등(2013)은 연구 결과들의 다양성을 보고하며 AS를 단순히 다른 자폐 하위유형과 통합하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AS와 AD 집단에 대한 MRI 결과를 보고한 논문에서도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AS가 ASD 단일범주로 포함이 된 것에 대해 여전히 논란과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이효정, 2014).

분석대상 연구 총 80편 가운데 8편(10%)은 AS를 고기능자폐 또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고기능자폐와 아스퍼거증후군을 구분하기 보다는 지능 지수가 70이상의 자폐성 장애를 아스퍼거증후군 또는 고기능자폐라고 혼용하여 사용하며 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AS와 AD, HFA, PDD-NOS와 비교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AS의 학생들은 분명 다른 ASD 집단과는 다른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어 자폐스펙트럼장애 연장선상의 어느 끝으로 보기에든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AS와 HFA, PDD-NOS의 의사소통 기능 및 지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고 있으며(박명희, 이승희, 2008; 양윤란, 신민섭, 1998; 조인희, 유희정, 2008), 사회성 측면에서도 HFA 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심이 AS 보다 적은 반면 AS 아동은 관심은 있으나 기술의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행동적인 측면에서 HFA는 공격성이 덜 나타나는 반면 AS는 적극적이고 반항적인 공격성을 보이며 진단 시기도 AS가 다른 ASD 보다 늦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박명희, 이승희, 2008; 이승희, 2007), DSM에서는 현재 그 명칭이 삭제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진단을 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는 ICD-10에는 아스퍼거증후군이 여전히 남아 있어 진단은 계속되고 있다. DSM-5.1 또는 ICD-11이 나올 때까지는 DSM-5의 진단 준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에 이승희(2104)는 이 두 가지의 개정판이 발행될 때까지 DSM-5의 진단준거의 사용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듯이 AS와 AD, HFA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보다 면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이고 꾸준한 연구를 통해 AS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진단기준 및 교육적·치료적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가야 할 것이다.

2) 연도별 연구주제 분포

1998년 처음 발표된 논문은 소아·청소년정신의학에서 발표된 양윤란과 신민섭(1998)의 연구로 연구주제는 AS와 PDD-NOS 아동의 인지기능과 시각-운동 협응 능력을 비교한 것이었으며 아동용 지능검사도구(K-WISC)와 시각-운동 협응능력을 평가 도구(BGT)를 사용하여 그들의 유의미한 차이를 밝혔다. 이후 2년간 AS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으며 2001년을 시작으로 AS를 포함한 ASD의 주요특징이며 기준인 언어 및 의사소통, 사회성,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었다.

2008~2013년은 AS의 사회성과 언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시기이다. AS의 사회성이나 언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맞물려 AS의 의사소통 및 사회성 결함의 원인이나 그 특성을 밝히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결함의 원인이 마음읽기의 결함과 실행능력의 결함, 취약한 중앙응집 등 AS의 인지적 특성에 있음을 밝히는 연구도 함께 꾸준히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AS 아동들이 보이는 결함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정서나 부적응적 행동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AS의 결함 특성과 결함의 원인, 결함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와 행동 문제, AS 아동들의 결함 특성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중재개발 및 적용 등 연구의 주제가 다양하였다. 또한 AS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가 누적되면서 문헌분석을 통해 AS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거나 AS의 특성을 확인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AS 연구가 활발한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는 연구의 주제가 보다 확장되어 AS 아동 자신이 인식하는 행동이나 적응 상의 어려움, 이들이 경험한 학교 폭력의 실재를 밝히는 연구가 나타났다. 연구의 참여 대상을 확장하여 AS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AS에 대한 이해와 양육과정상의 경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AS의 진단 및 평가와 감각과 관련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AD와는 달리 눈에 띄는 감각 이상을 보이지는 않은 AS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감각과 관련된 연구는 김은성과 김경미 (2008)의 연구가 유일하였다. 또한 AS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도 적었 는데 적절한 임상적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정의나 진단과 관련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AS에 대한 연구주제는 점차 다양화되고 성장을 보였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주춤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연구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양육자나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 교사, 또래들을 연구의 대상에 참여시켜 연구 주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이 평균이상의 지적능력과 언어 능력으로 인해 통합 상황에 더 많이 배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통합교육 및 통합 환경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일반통합 상황에서의 AS 아동들의 적응을 돕거나 교사 및 또래로 하여금 AS 아동들에 대한 이해와 접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활용도 높은 지원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는 단 한편의 연구도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졸업 이후의 자립생활 및 직업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 유형과 유형별 내용에 대한 논의

1) 연구 유형별 분포

연구 유형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총 80개의 분석논문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진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를 검증한 중재연구로 26편(32.5%)이었다. 그 외 특성연구가 24편(30%), 문헌연구 18편(22.5%), 질적연구 10편(12.5%) 순이었으며 진단 및 평가 연구는 2편(2.5%)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즉, AS 아동들의 결함을 보완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개발 및 적용한 연구와 이들의 독특한 특성 및 그 원인을 알고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문헌연구도 22.5%로 적지 않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연구의 성장은 AS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연구의 기초 이론을 세우거나 향후 새로운 연구 주제의 발견이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적연구에만 국한하지 않고 면담이나 관찰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질적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AS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결합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다각도에서의 지원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다고 할 수 있다.

중재연구와 특성연구, 문헌연구가 고르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AS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적합한 중재의 개발과 적용, 누적된 연구 자료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연구 방향 제시로 이어지며 AS에 대한 이론과 실체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며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특성연구는 AS의 언어 및 의사소통의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활발하였으며 중재연구는 사회성과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특성연구에서 밝히고 있듯 AS의 경우 자신이 경험한 단순한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상태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AS 인들과의 면담이나 직접 관찰을 통한 조사연구 및 질적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또한 여전히 부족하게 진행된 AS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연구 유형별 주제 분포

연구 유형별로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 중재연구는 AS 아동들의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 또래관계 기술 및 사회기술, 사회적 상황에 맞는 구체적 행동,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사회적 행동의 시도와 반응하기 등 AS의 주된 결합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중재가 개발·적용되었다. 사회성의 결합이 AS 아동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가장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중재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는데 AS는 평균이상의 지적 능력과 현학적인 언어표현 능력으로 인해 이들이 갖고 있는 장애적 특성을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나 집단에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적용에 더 큰 어려움을 갖고 오고 더 큰 행동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김경민, 2006; 전상신, 김은경, 2013; Bashe, Kirby, Baron-Cohen, & Attwood, 2005; Farrugia & Hudson, 2006; Thede & Collidge, 2007). 이러한 이유로 AS 아동들에 대한 정서 및 행동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중재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성연구의 경우, 언어와 의사소통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AS 아동들은 언어적 의사표현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나 상황에 맞춰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화용론과 의미론에서 지속적인 결합을 보인다. 사실을 전달하고 본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능력에는 지연을 보이지 않으나 의미를 전달하고 맥락을

과약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또래의 비장애학생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에 비하여 대화 내용의 핵심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고 우회적이며 자신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특이하고 제한된 영역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되며, 상대방의 관점이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여 자신만의 관점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이 통합교육 상황에서의 적응이나 상호 호혜적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독특하고 이질적인 언어적 특성을 연구한 특성연구는 추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중재개발연구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많이 이루어진 연구유형은 문헌연구였는데 그 주제는 AS인들의 사회성, 언어 및 의사소통, 인지 특성 및 진단 평가와 관련하여 고루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것은 AS 영재에 대한 문헌연구와 통합교육, 학교폭력에 대한 문헌연구 등 그 주제가 다른 유형의 연구들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국내 연구에 대한 문헌 보다는 보다 오랜 기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된 국외의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AS의 통합교육이나 학교폭력의 문제는 비단 외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며 비교적 심각하게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AD 아동들보다는 AS 아동들이 학교 폭력에 더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AS 및 HFA 아동들이 보다 빈번한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음이 선행연구(이효정, 2013)를 통해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헌연구를 기초자료로 하여 국내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실정을 연구하여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질적연구의 경우에는 AS 아동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 부적응행동에 대해 면담을 실시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 친구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 AS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실제적 경험과 그들 가족을 치료하며 관찰된 내용 등을 분석한 연구, 학교폭력을 경험한 AS 아동의 부모면담, AS 인이나 가족들이 올린 동우회의 글 분석연구 등 그 주제가 비교적 다양하였다. AS 인들은 다른 ASD 인들보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물론 이들의 일방적인 관점일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이들의 입장이나 생각, 관점을 조사하여 분석한다면 AS에 대해 보다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AS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연구는 단 한편도 없었다. 학령기의 AS 아동들을 위한 보다 실제적인 지원 계획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AS 성인을 대상으로 학령기에 그들이 경험한 어려움과 필요했던 구체적 도움, 현재 성인이 되어 겪게 되는 사회적 경험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연구도 요구된다. 국외의 경우 AS 본인이 쓴 자서전이나 가족 등이 기록한 글들이 많으며 이것을 통해 AS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따라서 AS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다양한 유형의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AS인 또는 가족, 또래, 그들과 함께 일을 하는

동료 및 관련인으로 참여대상도 확장시키고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적게 이루어졌으나 그 필요성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평가연구는 2편이었다. 두 편 모두 의학영역에서 발표된 것으로 AS 진단척도를 국내에 표준화하기 위한 연구였다. AS를 진단하는 도구는 존재하지만 자폐성장에 진단도구에 비하여 신뢰도나 사용에 제한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임상적 진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석 대상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AS 아동들에 대해 대상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만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평가 도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연구의 양적 증가와 주제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단 및 평가, 정의에 대한 연구의 수는 매우 적었다. 물론 AS에 대한 진단 시기가 이르지 않고 여전히 그 정의가 모호하여 HFA 또는 PDD-NOS와 혼란이 있지만 ASD의 예후는 무엇보다도 조기 진단과 적절한 시기의 교육과 치료의 제공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S만의 고유의 특성을 분별해내고 이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기초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진단 시기를 앞당기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적 접근을 보다 이른 시기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AS 아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 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적절한 지원을 학교에서 받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손승현, 2008). 특수교육전문가들은 AS 아동들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학교 현장에 제공해야 한다. 현재 통합교육 현장에서 AS 아동들이 얼마나 그들의 장애를 이해받고 그에 적합한 지원을 받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추후 AS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연구들이 언어 및 의사소통, 사회성, 행동이라는 특성 이외에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및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와 통합교육, 진로 및 직업 등 보다 확대된 주제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3.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아스퍼거증후군 관련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로 AS에 대한 연구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최근 2-3년 사이에 AS를 주제로 한 연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에는 한 편의 연구도 없었다. AS의 보다 명확한 진단기준 및 정의, 이에 적합한 교육적, 치료적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나갈 수 있는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AS 연구의 주제는 결합 특성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화

되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주제뿐 아니라 AS 아동들의 통합교육에서 필요한 지원 및 졸업 후 진로,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와 AS 인들과 가족, 또래와의 면담을 통한 보다 실제적인 요구 등 확장된 주제로 연구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금까지도 그 특성과 정의, 진단에 대해 논쟁이 되고 있는 AS를 고려하여, AS 인들과 가족 및 또래를 비롯한 주변인들과의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를 활성화하여 이들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명확한 정의와 진단을 위한 평가 및 도구개발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선행된 중재연구는 사회성과 부적응적 행동 개선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으로 편중된 경향을 보였으며 언어 및 의사소통 관련 중재 연구는 비교적 적게 이루어졌다. 반면, 특성연구는 AS의 언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가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언어 관련 특성연구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AS 인들의 언어 및 의사소통의 결함을 보완하고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와 함께 AS 성인을 대상으로 과거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과 필요했던 지원 및 현재 성인으로서 필요한 요구에 대한 면담자료를 수집하여 학령기 전후의 AS 아동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6).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김경민 (2007). 아스퍼거 장애 학생의 행동문제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비교 연구: 교육적 요구와 중재의 상호작용 비교.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애화, 김의정, 김은경, 서선진, 박현, 김은숙 (2011). 특수교육 학회지 동향 분석. **특수교육 연구**, 18(2), 49-78.
- 김은경, 김은경 (2006). 국내 자폐 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1996-2005년 특수교육 학술지 수록 연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1(1), 79-109.
- 김은경, 방명애, 박현옥 (2014). 자폐성장애 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국내 특수교육 분야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9(3), 167-193.
- 신석호 (2014). **비언어성 학습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소현, 이수정, 윤선아 (2013). 자폐 범주성 장애의 조기진단 및 교육 연계를 위한 지원 체계 수립: 부모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자폐성장애연구**, 13(1), 167-199.
- 이승희 (2004). DSM-5의 자폐스펙트럼장애에 관한 10문 10답. **정서·행동장애연구**, 30(3), 1-33.
- 이승희 (2015).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이해(2판)**. 서울: 학지사.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52),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68),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2ed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3th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4th ed., Text Revision).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th ed., Text Revision). Washington, DC; Author.
- Attwood, T. (1998). *Asperger's syndrome: A guide for parents and professionals*. Philadelphia, P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Bashe, P. R., & Kirby, B. L. (2005). *The OASIS guide to Asperger syndrome: Advice, support, insight, and inspiration*. Crown Publishing Group (NY).
- Creonm L. A., Grether, J. K., Hoogstrate, J., & Selvin, S. (2002). The changing prevalence of autism in California.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2(3), 207–215.
- Ehlers, S., & Gillberg, C. (1993). The epidemiology of Asperger syndrome: A total population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8), 1327–1350.
- Farrugia, S., & Hudson, J. (2006). Anxiety in adolescents with Asperger syndrome: Negative thoughts, behavioral problems, and life interference.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21(1), 25–35.
- Fraenkel, J. R., & Wallen, N. E. (1996). *How to design and evaluate research in education*(3rd ed.). New York: McGraw-Hill.
- Gibbs, V., Aldridge, F., Chandler, F., Witzlsperger, D., & Smith, K. (2012). Brief report: An exploratory study comparing diagnostic outcomes for autism spectrum disorders under DSM-IV-TR with the proposed DSM-5 revisio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2(8), 1750–1756.
- Gillberg, C. (1998). Asperger syndrome and high functioning autism.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2, 200–209.
- Graff, H. J., Berkeley, S., Evmenova, A. S., & Park, K. L. (2014). Trends in autism research: A systematic journal analysis. *Exceptionality*, 22(3), 158–172.
- Howlin, P., & Asgharian, A. (1999). The diagnosis of autism and Asperger syndrome findings from a survey of 770 families.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41, 834–839.

- Kite, D. M., Gullifer, G., & Tyson, G. A. (2013). How will DSM-5 Affect Autism Diagnosi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3(7), 1692-1700.
- Klin, A., McPartland, J., & Volkmar, F. R. (2005). Asperger syndrome. In F. R. Volkmar, R. Paul, A. Klin, & D. Cohen (Eds.). *Handbook of autism an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3rd ed., pp. 88-125).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Pina-Camacho, I., Vilerob, S., Boada, I., Fragiasc, D., Janssen, J., Mayorala, M., Llorente, C., Arango, C. & Parellada, M. (2013). Structur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data do not help support DSM-5 autism spectrum disorder category. *Research in Autism Disorders*, 7(2), 333-343.
- Raheja, S., Libretto, S. E., & Singh, I. (2002). Successful use of risperidone in and adult with the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asperger's syndrome: a case report.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48(1), 61-66.
- Reiehow, B., Volkman, F. R., & Ciechetti, D. V. (2008). Developmental of the evaluation method for evaluating and determining evidence-based practices in autism.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8(7), 1311-1319.
- Thede, L. L., & Coolidge, F. L. (2007). Psychological and neurobehavioral comparisons of children with Asperger's disorder versus high-functioning autism.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7(5), 847-854.
- Tsai, L. Y., & Ghaziuddin, M. (2014). DSM-5 ASD moves forward into the past.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4(2), 321-330.
- Volkmar, F. R., & Klin, A. (2005). Issues in the classification of a autism and related conditions, In F. R. Volkmar, R. Paul, A. Klin, & D. Cohen (Eds.), *Handbook of autism an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3rd ed., pp. 5-41).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2).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10th ed.). Geneva, Switzerland: Author.
- Young, R. L., & Rodi, M. L. (2014). Redefining autism spectrum disorder using DSM-5: The implications of the proposed DSM-5 criteria for autism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4(4), 758-765.

<분석대상논문>

- 강경미 (2007). 아스퍼거 장애 아동의 행동특징 및 치료에 관한 연구. **복음과 상담**, 9, 9-27.

- 강미진, 김홍근 (2012). 아스퍼거 장애에서 관리기능의 결손: 짝과제를 사용한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581-598.
- 권유진, (2010). 초등 저학년 아스퍼거증후군 아동의 구문 표현 능력. **언어치료연구**, 15, 193-204.
- 권유진, 배소영(2009). 아스퍼거증후군 아동의 이야기 구성 능력. **언어치료연구**, 18(2), 65-84.
- 김경민 (2011). 손인형을 이용한 사회적 상황이야기 중재가 아스퍼거 장애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과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 교육연구**, 13(4), 311-330.
- 김경민 (2013). 운동프로그램이 아스퍼거 장애 아동의 불안과 위축 및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9(3), 105-129.
- 김경민, 배내운 (2011). 감정 읽어주기가 아스퍼거 장애 아동의 공격행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3(1), 63-77.
- 김경민, 서경희 (2007). 아스퍼거 장애 학생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학생 자신의 인식 특성.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6(2), 59-84.
- 김광육, 조성재, 김화수 (2015).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읽기 기술에 관한 연구동향.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6(1), 307-330.
- 김미란, 유원경, 임현수 (2011). 아스퍼거증후군의 마음이론 연구 동향 분석. **자폐성 장애연구**, 11(3), 67-92.
- 김순애, 김나영 (2004).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연구. **놀이치료연구**, 8(2), 33-47.
- 김완숙, 방명애 (2014). 자폐성장애포아동을 위한 사회적 상황이야기 중재를 활용한 국외 실험 연구 분석. **자폐성장애포연구**, 14(1), 47-73.
- 김원, 강경숙, 마영남 (2011). 유기견을 활용한 동물보조중재가 아스퍼거증후군 아동의 사회적 향상 및 가족유대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 연구**, 15(3), 117-138.
- 김은경 (2012). 아스퍼거 장애 학생의 사회적 의사소통 중재에 대한 메타분석과 단일대상연구 효과 크기 적절성 검토. **특수교육연구**, 19(1), 321-359.
- 김은성, 김경미 (2008). 감각통합치료가 아스퍼거 아동의 전정· 고유감각 처리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6(1), 35-46.
- 김은실, 이승희 (2011). 아스퍼거증후군관련 국내연구 분석. **자폐성장애포연구**, 11(1), 23-41.
- 김정민 (2010). (아스퍼거를 위한 사회적 중재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on Social Interventions for Individuals with Asperger Syndrome. **자폐장애연구**, 10(1), 57-73.
- 김정일 (2004). 아스퍼거증후군 유아의 부적응 행동 중재를 위한 또래개입 사회상황 이야기 효과. **특수교육연구**, 11(2), 425-445.
- 김하나, 신민섭 (2011). 한국판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척도의 타당화 및 진단 분할점 산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2(2), 81-88.
- 나수현 (2006). 고기능 자폐 및 아스퍼거증후군 아동의 사회성과 우정 발달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특수교육**, 5(1), 27-49.

- 나수현, 윤선아 (2012). 아스퍼거증후군 아동의 친구관계에 대한 인식. **정서·행동장애연구**, 28(2), 23-48.
- 문지영 (2010). 마음이론에 근거한 음악극이 아스퍼거증후군 아동의 자기인식과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6(2), 197-222.
- 문태영 (2007). Asperger Syndrome 영재의 이해. **The Educational Journal for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49, 387-401.
- 박명희, 이승희 (2008). 고기능자폐증과 아스퍼거증후군 비교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4(4), 57-92.
- 박서정, 주용국 (2014). 아스퍼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과 성장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재활심리연구**, 21(2), 207-231.
- 박지현, 최경순, 황민아 (2010). 아스퍼거 아동의 시각유추추론 능력과 언어유추추론 능력의 비교. **자폐성장장애연구**, 10(1), 109-119.
- 박지혜, 이윤경 (2006). 아스퍼거증후군 아동의 이야기 자발적 산출 및 회상산출 능력비교. **언어청각장애연구**, 11(3), 193-207.
- 서경희 (2001). 아스퍼거증후군-인지적 결손을 중심으로. **재활심리연구**, 8(2), 83-103
- 서경희 (2002). 고기능 자폐아와 아스퍼거 장애아의 마음 이론 결손과 중재. **정서·행동장애연구**, 18(3), 37-64.
- 서경희 (2013). 고기능 자폐장애 청소년과 아스퍼거 장애 청소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특성. **정서·행동장애연구**, 29(1), 73-106.
- 서경희 (2014). 파워카드 전략과 모델링의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대화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0(1), 1-26.
- 서경희, 안미경 (2011). 고기능 자폐장애 청소년과 아스퍼거증후군 청소년의 화용론적 특성: 질적·양적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7(1), 21-49.
- 서정하, 이소연 (2008). 파워카드 전략을 사용한 사회적 시작행동 중재가 아스퍼거증후군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자폐성장장애연구**, 8(2), 1-21.
- 손승현 (2008). 아스퍼거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전략. **특수아동교육연구**, 10(1), 191-213.
- 신민섭, 김현미, 온싱글, 황준원, 김봉년, 조수철 (2006).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 아스퍼거 장애, 학습 장애 아동의 실행기능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7(2), 131-140
- 신석호 (2008). 아스퍼거증후군의 진단과 관련된 혼란들. **정신건강의학**, 47(3), 230-238.
- 안윤정, 현진희 (2014). 아스퍼거증후군 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6(1), 113-138.
- 양운란, 신민섭 (1998). 아스퍼거증후군과 비전형 자폐장애 아동의 KEDI-WISC 와 BGT 수행의 비교.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9(2), 165-173.
- 염세미, 고선희, 황민아 (2013). 고기능 자폐아동의 단어범주화 특성. **Commun Sci & Dis**, 18(4), 360-367.
- 오세림 (2008). 아스퍼거증후군 혹은 고기능 자폐 학생의 사회성 중재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단일대상연구를 중심으로. **자폐성장장애연구**, 8(1), 123-142.

- 오은실, 황민아, 임종아 (2013). 아스퍼거 아동의 정서적 맥락 이해 결함. **자폐성장애연구**, 13 (2), 1-14.
- 온싱글, 신민섭 (2007). 사회성 결함이 있는 소아정신과 장애 아동을 위한 사회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인지행동치료**, 7(2), 1-16.
- 우주영 (2004). 아스퍼거 장애아동의 놀이치료 사례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0(4), 231-263.
- 유은정 (2001). 아스퍼거증후군 아동의 언어 및 행동특성. **특수아동교육연구**, 3, 137-147.
- 윤치연, 최성욱 (2009). 국내·등 아스퍼거 장애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특수 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0(2), 285-305.
- 윤현숙, 박금주 (2005). 비디오피드백과 반응대가 훈련의 병행을 통한 사회성 기술훈련이 학령전 아스퍼거 장애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인간발달연구**, 12(2), 23-41.
- 이경숙 (2009). 아스퍼거 장애아동의 '음악 만들기 경험'의 의미 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 103-123.
- 이경숙, 홍정은, 신의진 (2002). 아스퍼거 장애아동의 사회 인지 향상 프로그램 적용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3), 71-91.
- 이경숙, 홍정은 (2002). 아스퍼거 장애 중학생의 사회 인지 향상 프로그램 적용사례. **놀이치료연구**, 6(2), 75-91.
- 이경숙, 신의진, 조숙환, 주금정 (2011). 아스퍼거증후군 아동의 이야기 분석. **담화와 인지**, 18(3), 195-217.
- 이경하, 이정자 (2006). 아스퍼거증후군 유아의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 사례연구. **놀이치료연구**, 10(2), 87-103.
- 이다미, 황민아, 임종아 (2013). 아스퍼거아동의 속담 이해 특성. **Commun Sci & Dis**, 18(3), 288-296.
- 이다희, 고선희, 황민아 (2014). 학령기 아스퍼거 아동의 관용어 이해 특성. **언어치료연구**, 23(3), 105-112.
- 이상경, 김성수 (2008). 또래가 참여하는 마음읽기 접근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아스퍼거 장애 아동의 사회-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17(1), 45-63.
- 이승희 (2007). 고기능자폐증과 아스퍼거증후군의 비교 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23(3), 1-24.
- 이재욱, 이재욱 (2010). 파워카드 전략을 사용한 스트레스 표현행동 증체가 아스퍼거증후군 아동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2(1), 1-21.
- 이정자 (2009). 아스퍼거 장애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 연구. **재활심리연구**, 16(2), 95-113.
- 이중숙, 조희정 (2008). 고기능 자폐아동들을 위한 또래리더 경험 게임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1(1), 113-135.
- 이화영, 서경희 (2013). 아스퍼거 장애 아동의 그림 상황 설명하기 특성.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4), 193-223.
- 이효정 (2014). 사라진 진단명 혹은 새로운 출발: 아스퍼거증후군과 DSM-5 관련 연구현황 및 쟁점. **자폐성장애연구**, 14(1), 1-20.

- 이효정 (2013). 자폐성 장애학생과 학교폭력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및 문헌분석. **자폐성장애 연구**, 13(2), 87-109.
- 이효정 (2009). 아스퍼거증후군 성인의 수용적 행동. **특수교육학연구**, 44(1), 129-147.
- 이효정, Myles Brenda Smith, Tien Kai - Chien (2009). 아스퍼거증후군 성인의 외현적 행동. **정서·행동장애연구**, 25(3), 1-18.
- 이효정, 이영선 (2013). 자폐성 장애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 및 지원요구: 어머니 심층면담 중심으로. **자폐성장애연구**, 13(3), 53-80.
- 임경아, 전영숙 (2015). 아스퍼거 장애 아동 가족의 문제행동 완화를 위한 가족미술치료 사례 연구. **미술치료연구**, 22(6), 1807-1827.
- 임연화, 이윤경, 이경숙, 신의진 (2000). 학령전 아동과 고기능 자폐장애 아동의 마음이론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73-185.
- 장미순, 김은경 (2012). 자기관리 훈련이 아스퍼거증후군 학생의 식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8(3), 59-81.
- 전상신, 김은경 (2013). 부모지원을 결합한 인지행동지도가 아스퍼거증후군 초등학생의 사회적 유능감과 부모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8(3), 147-174.
- 정보경 (2015). 아스퍼거 및 고기능자폐 소아청소년의 사회적 증진 요인에 관한 연구. **자폐 성장애연구**, 15(1), 45-67.
- 정훈영, 서경희 (2012). 아스퍼거증후군 아동의 간접 화행 이해 특성에 관한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8(1), 73-101.
- 조인희, 유희정 (2008). 고기능자폐장애와 아스퍼거증후군의 K-ADOS, K-ADI-R 프로파일 비교. **자폐성장애연구**, 8(1), 23-37.
- 조정숙 (2011). 협동작업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아스퍼거 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18(1), 41-64.
- 조정숙, 조명숙, 이효신 (2013). 아스퍼거 장애 아동·청소년의 인지적 특성 : K-WISC-IV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9(1), 107-123.
- 조정숙, 이효신 (2013). 아스퍼거증후군 아동과 ADHD 아동의 인지적 특성 비교: 지능과 실행 기능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9(4), 39-59.
- 조희순 (2009). 모래놀이치료를 통한 아스퍼거 장애유아의 통합교육 사례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3(6), 455-480.
- 최성욱, 서경희 (2009). 동화 중심 인재행동중재가 아스퍼거 장애 아동의 사회적 인지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5(2), 77-101.
- 하영례 (2002). 아스퍼거증후군유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18(3), 281-306.
- 하영례, 이현섭 (2003). 아스퍼거 장애아의 의사소통 시 나타나는 이해특성 연구. **언어치료연구**, 12(2), 207-225.
- 하영례, 서은정, 최귀길 (2011). 아스퍼거증후군 아동의 부모가 인식한 자녀의 초등학교 생활 부적응 원인. **특수교육**, 10(1), 257-282.
- 황지희, 광영숙 (201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과 아스퍼거증후군 아동에서 사회기술 훈련의 효과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4(4), 199-206.

An Literature Review on Domestic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Asperger Syndrome

Jeon, Sang Shin

Kwangju Women's University

<Abstract>

Recently the name of Asperger Syndrome was disappeared and was unified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from the newly reorganized DSM-5 criteria. While controversy over its diagnosis has been ongoing, this study updated and reviewed the trends in academic researches that are related to the asperger syndrome published between 1994 and June 2016 in Korea. A total of 80 studies was selected based on inclusion criteria and exclusion criteria and was analyzed by the published year, the research topic, and the research type. The results of this review were as follows. First, the domestic researches related to asperger syndrome tended to increase significantly since 2008. Second, language and communication,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were the main topics of researches and especially, social competence was the most popular topic in numerous researches. Third, the main research types were the intervention study and the characteristic study. The synthesis study was conducted in many researches. However, only two researches were included in diagnosis and assessment study criteria. Fourth,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research topics according to the type of studies, most common topics were social competence in the intervention study and language and communication in the characteristic study.

Key Words : asperger syndrome, autism spectrum disorders, DSM,
research trends

논문 접수: 2016. 09. 05 심사 시작: 2016. 09. 10 게재 확정: 2016. 10. 17